



NEWS LETTER

2021년 6월 14일 Vol. 410

신경과 뇌졸중센터 김동억 교수 연구팀, 82억 규모 국가 연구과제 수주



동국대학교의료원 신경과 뇌졸중센터 김동억 교수 뇌졸중 연구팀이 지난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주관의 2021년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뇌혈관질환 혈액-면역계’ 연구에 국비 70억원, 지자체 및 대학에서 13억 4천만원 등 총 82억7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연구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30년 2월까지 총 9년이다.

김동억 소장과 함께 참여하는 주요 공동연구자는 알레르기내과 김우경 교수, 안과 박철용 교수, 신경과 류위선 교수, 의공학교실 남기창 교수, 의과학연구소

최승범 교수 등으로 임상, 기초, 의공학 분야의 핵심연구진이 다학제 협력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팀은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뇌혈관질환 기초-중개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고양시 바이오 의료 거점연구소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김동억 소장은 “지난 6년간 하버드의대와 수행한 연구재단 글로벌 연구실 과제의 뇌혈전증 연구 성과가 뇌졸중 중점연구소 사업으로 곧바로 연계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 9년간 뇌경색 및 뇌출혈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직원 불자 연우회, 의료봉사용 미니버스 기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 연우회는 지난 6월 8일 의료봉사용 미니 버스를 병원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연우회에서 매년 성지순례 및 의료봉사 활동 시 전세버스를 대여해 사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연우회 임시총회를 통해 미니버스를 구매해 기증한 것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해원 연우회장을 비롯해 권범선 일산병원장, 임성우 일산 한방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지도법사 능지 스님, 연우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우회장 이해원 교수는 “앞으로 연우회에서는 의료 자비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건강한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우회 에서 기증된 버스는 병원 차량운영 지침에 따라 사용될 계획이며 연우회 의료봉사 활동 시 우선 배차될 예정이다.



일산 양일중학교 동국대일산병원에 감사편지와 선물 전달

지난 6월 10일 일산 양일중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위해 손편지와 학생들이 모금을 통해 구입한 음료수를 동국대 일산병원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양일중학교 각 학년 학생대표 7명과 담당교사 1명이 방문했으며 권범선 병원장과 감염관리실 박성연 실장, 최기석 행정처장, 진영숙 간호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생들을 대표해 편지를 낭독한 양일중학교 전교 학생자치회장 손채원 학생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씩씩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모습에 감동 했다”며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의료진 선생님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항상 감사함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은 “양일중학교에서 감사 편지와 귀한 선물을 주셔서 저희 의료진 모두 힘이 난다”며 “다시 한번 아낌없이 보내 주신 격려에 감사드리며 항상 묵묵히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익명의 비구니스님, 의료취약계층에 ‘사회사업기금’ 1천만원 기부

지난 6월 4일 익명을 요청한 한 비구니 스님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치료 조차 받기 힘든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1천만원을 기부했다.

스님은 “기부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럽다. 부처님 심부름하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뜻을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11월에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며 1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